

30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자신이 성공하는 내면의 그림을 마음속에
명확히 그리고 지울 수 없게 각인시켜라.

이 그림을 끈질기게 감지하라.

절대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이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신의 상상속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마라.

-노먼 빈센트 필

[1 ~ 3]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찬성 1: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의 조리법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한식의 조리법은 복잡한 데다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리하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식 고유의 맛과 모양에서 많이 벗어난 음식들까지 등장하여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부터 식자재 종류와 사용량, 조리하는 방법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해 놓으면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 2: 한식의 표준화가 획일화를 가져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찬성 1: 물론 해 보았습니다.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과 이에 대한 교차 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조리하는 사람의 깊은 손맛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식을 선불리 표준화하면 이러한 한식 고유의 손맛을 잃어 버려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이 오히려 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찬성 1: 한식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손맛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 1: 손맛은 조리하는 사람마다의 경험과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음식에 이러한 것들을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의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차 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한식의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한식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의 한식당에 가 보니 소금에 절이지도 않은 배추를 고춧가루 양념에만 버무려 놓고, 이것을 김치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식의 세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 1: 그것은 한식의 표준화보다 정책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찬성 2: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정부의 홍보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 2: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식당들이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카레로 유명한 나라지만 표준화된 인도식 카레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의 표준을 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입맛은 우리와 다르고 또 다양할 텐데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식의 세계화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한식 조리법의 특성과 최근의 부정적 상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반대 1'은 한식의 표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2'는 한식의 표준화가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대 2'는 현황과 사례를 들어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한식 표준화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위 토론에 나타난 하위 쟁점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가.
 ㄴ.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가.
 ㄷ. 손맛을 한식의 표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ㄹ.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한식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식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한식의 전통을 유지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식의 표준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내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서 사용했던 조리법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맛이 없다고 말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맛은 다양하고 외국의 식자재도 한국의 식자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론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 한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를 ‘찬성 2’와는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군.
- ②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의 일부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군.
- ③ ㉢: ‘찬성 2’의 주장에 부합하는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군.
- ④ ㉣: ‘반대 2’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군.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진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교수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 오늘은 교수님께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저희 학교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교수: (웃으면서) 고등학생이 지역학에 관심을 가져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 ㉡ 그럼 지역학은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학생: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네요. 한국학도 지역학의 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표를 보여 주며)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입니다.

학생: (표를 살펴보며)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안에 서울학, 영남학, 호남학, 제주학 등의 지역학이 있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학은 15개인데,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
교수: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로 적합하겠지요.

학생: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
교수: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교수: ㉣ 쉽게 말해,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각입니다.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이 과제인 미래 사회에서 지역학은 각광 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학생: ㉤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점검표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오	
지역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본다.	✓	①
지역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	②
지역학과 관련하여 특집 기사에 넣을 만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③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확인한다.		✓④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	⑤

[6 ~ 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예상 독자: 정부 관계자 ㉠
- 글을 쓰게 된 배경: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자주 겪고 있음. ㉡
- 글을 쓰는 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함. ㉢
- 유의할 사항: 학교에서 건의문 쓰기에 대해 배운 내용 중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자 함.
 1. 예의 바르게 글을 시작하고, 정중하게 표현한다. ㉣
 2.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나) **학생의 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박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 그만둔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제 주변 친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청소년들의 1/3 가량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데, 그중 19.2%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주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그것이 ㉢ 저해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에서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를 엄중하게 ㉣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과 권리구제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건의한다.
- ② ㉡를 드러내기 위해 친구들이 겪은 사례를 제시한다.
- ③ ㉢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④ ㉣를 고려하여 인사말과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경어체를 사용한다.
- ⑤ ㉤를 고려하여 현 실태를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설문 내용	응답률	
	예	아니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8.3 %	71.7 %
청소년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5.9 %	74.1 %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고 계속 일했다.’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 ① 고용주들이 노동관계 법령을 잘 몰라서 불러올 수 있는 피해를 추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정부 당국이 노동관계 법령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③ 청소년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고용주들이 근로 기준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을 ‘그만둔 지’로 수정한다.
- ②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을 삭제한다.
- ③ 어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을 ‘침해당했을’로 교체한다.
- ④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을 ‘처벌해야’로 수정한다.
- ⑤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을 ‘그런데’로 교체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여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학생의 글]

지난 주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에는 리더십 게임, 강연, 모둠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나는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자에게 집중되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된다는 것이 강연의 핵심 내용이었다.

강연을 듣고 나니 리더십에 대한 나의 생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학기에 동아리 회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할 때, 나는 리더로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나에게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그때 나는 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했던 것 같다. 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더 알찬 행사를 구성하고,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9. <보기> 중 [학생의 글]에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ㄴ. 강연의 내용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 ㄷ. 강연에서 깨달은 바를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 ㄹ.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학생의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것.
 -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
 -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전에 읽은 책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기억이 난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포용하는 태도를 길러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겠다.
- ②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꺼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닐까?
- ③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까닭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내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다.
- ④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므로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11. <보기>는 겹받침 '리'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 받침 '리'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옛것과 'ㅎ'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한다.
 - ㉣ '리'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받침 '리'은 '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박따].
- ② ㉡: 밝게[발게] 웃으며 인사하다.
-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켄따].
-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 ㉡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할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음. 예) 맏이, 굳이, 묻히다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음. 예) 희망, 하늬바람	㉢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 예) 떡이, 손이, 팔이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함. 예)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음. 예)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	㉥

1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 ㉡: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14.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달다¹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예)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² ㉢ [달아, 다니, 다오]
 ㉢ 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 ‘달다¹’과 ‘달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느군.
- ㉡ ‘달다¹’과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는군.
- ㉢ ‘달다¹’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 ‘달다²’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 ‘달다¹’의 ㉡은 ‘달다²’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6.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중세 국어] ㉠ 부테 目連(목련)이드려 ㉡ 니르샤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 부텃 使者(사자) 왔다 ㉣ 드
르시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쥬 勝鬘(승만)이 聰明(총명)하니 부터웃
㉤ 보스븐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뵈면

— 『석보상절』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③ ㉢: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해설

③④③③⑤
③③⑤②①
④②⑤③③
②

1. [출제의도] 토론 절차에 따른 참여자의 입론 내용을 파악한다.

‘찬성 2’는 두 번째 입론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근거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에 앞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여러 대안들 중 한식의 표준화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토론에서 하위 쟁점을 파악한다.

첫 번째 입론과 교차 조사의 과정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를 하위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입론과 교차 조사의 과정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가.’를 하위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하였다.

3. [출제의도] 토론에 참여한 청중이 쓴 글을 평가한다.

㉠은 표준화된 조리법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개인적 경험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찬성 2’의 논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에서 교수는 학생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 경험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한다는 것이 인터뷰의 목적에 해당한다. ② 학생은 교수의 설명에 대해 지역학이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질문하였다. ④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학생의 말에 반응하여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⑤ 학생은 교수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5. [출제의도] 인터뷰의 계획에 따라 인터뷰한 내용을 평가한다.

A형 5번 참고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및 형식을 파악한다.

(나)는 마지막 문단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정부 당국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②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었던 부당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인사말과 자기소개가 있고 글 전체에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해서 건의문의 초고를 보완한다.

[자료 1]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필요한 관계 법령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료 2]는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계 법령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자료 1]과 [자료 2]는 고용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 1]과 [자료 2]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초고를 고쳐 쓴다.

㉠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은 ‘그리고’나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풀이] ① ㉠의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② ㉠은 전체 글의 요지와 관련성이 적고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에서 ‘저해되다’는 ‘방해가 되거나 못하게 해를 받다.’라는 뜻이므로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을 때는 ‘침범당하여 해를 입다.’라는 뜻인 ‘침해당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④ ㉠은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학생의 글]의 첫 번째 문단은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ㄱ은 적절하다. 두 번째 문단은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을 할 때 겪었던 일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ㄴ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학생의 글]에는 강연의 내용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요약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ㄴ은 적절하지 않다. 또,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 및 그것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ㄷ도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추어 글을 쓴다.

①은 첫 번째 문장에서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겠다는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③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는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는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접반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밝기[발끼]’는 ‘리’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인 ‘-기’와 결합하므로, 뒤엀인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밝다[박따]’는 ‘리’이 자음인 ‘ㄷ’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밝게[발게]’는 ‘리’이 ‘밖-’이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하고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밝혔다[발헛따]’는 ‘리’이 뒤 음절 첫소리인 ‘ㅎ’과 결합하여 ‘ㄱ’과 ‘ㅎ’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밝는다[방는다]’는 ‘리’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 ‘ㄹ’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본 모양인 ‘ㄴ’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원칙인 ㉠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ㄷ, ㅌ’이 구개음화되어 ‘ㅈ, ㅊ’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혀 ‘ㄷ, ㅌ’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이’나 ‘-음’이 결합하여 된 단어라고 해도, 그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것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파악한다.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에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의 적절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의 적절한 사례로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침에 우산을 챙겼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어(‘내가 하고 싶은 말’)와 서술어(‘배려해서 행동하자’)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서술어(‘두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부사어(‘...에’)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집’에 대한 서술어(‘신다’ 등)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에서 ‘달다’는 ‘(...을 ...에)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는 뜻이므로,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라는 뜻인 ‘달다’ ㉠의 용례로 추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②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의 활용 정보에 따르면, ‘달다’와 ‘달다’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어간의 ‘ㄹ’이 탈락하면서 ‘다니’로 활용된다. ⑤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정보에 따르면, ‘달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에’)와 목적어(‘...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고, ‘달다’는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없는 서술어이다.

15. [출제의도] 피동문에 대해 이해한다.

㉠의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 모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의 능동문에서는 ‘눈이 세상을 덮는 동작’이 연상되는 것에 비해, 피동문에서는 그런 동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날리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인 ‘날다’에서 파생된 경우이다. ⑤ ‘날씨’가 바뀌는 행위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문장의 의미 자체가 상황 의존성을 강하게 가져 동작성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어두의 ‘ㄴ’에 모음 ‘ㅣ’가 결합되었으나 ‘ㄴ’이 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현대 국어(‘이르시되’)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오답풀이] 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부터’)에 주격 조사가 ‘가’가 아니라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③ ‘부터’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의’가 아니라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④ 문장의 주어인 ‘야수’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⑤ 문장의 목적어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습-’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없는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